

저자 (Authors)	정현숙 Jung, Hyun-sook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3 , 2019.12, 215-254 (40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3 , 2019.12, 215-254 (4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9704
APA Style	정현숙 (2019). 통일신라 金生의 서예 -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에 근거하여-. 목간과문자, 23, 215-2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30 09: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통일신라 金生의 서예*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에 근거하여-

정현숙**

- I. 머리말
- II. 김생에 관한 기록과 필적
- III. 〈낭공대사비〉로 본 김생의 서예
- I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의 명필 金生의 글씨로 확실한 것은 고려 초의 집자비인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954)와 목판본인 〈田遊巖山家序〉다. 전자는 결구 중심이지만 원의가 살아 있고, 후자는 번각본이므로 원의가 많이 사라졌다. 따라서 김생 글씨 연구의 기준작이면서 그의 필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집자비를 통해 김생의 서예를 살펴보았다.

崔仁浼과 純白이 지은 〈낭공대사비〉는 김생의 해서와 행서로 집자되었다. 또 행서 필의가 있는 해서, 해서 필의가 있는 행서도 혼용되어 해서와 행서 사이를 자유로이 오간 김생의 출중함을 보여 준다. 그의 해서는 웅강무밀한 북위풍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동시대 당나라의 안진경풍, 이전의 고신라풍도 있다. 북위 해서에 근거한 그의 힘찬 행서는 유려한 왕희지 행서와는 구별된다.

이 비는 신라에서 6세기 말부터 사용된 북위풍 해서가 7세기를 거쳐 8세기 김생에 의해 무르익었음을 알려 주고, 김생은 8세기부터 신라에서 유행한 왕희지 행서를 배웠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창적 서풍을 창조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서성 왕희지와 해동서성 김생은 차별성을 말할 수 있을지언정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 핵심어: 김생, 최인연, 순백,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전유암산가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9).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김생(711-791 이후)은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에 전이 기록된 유일한 서예가로, 글씨의 뛰어남이 서성 왕희지에 견줄 만하여 ‘海東書聖’으로 불린다. 진적이 많았을 고려 초에 시작된 김생 글씨의 집자는 조선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중기에 발에서 발견된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954)(이하 <낭공대사비>)가 김생의 집자비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와 군인들이 비의 탁본 수천 부를 가져가 중국에서도 유명해졌다. 이후 명나라 사신이 진상품으로 비의 탁본을 요구했으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¹⁾

비의 발견 전부터 김생 글씨에 대한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품평이 이어졌으니, 兩朝까지 그의 글씨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의 이규보(1168-1241)는 ‘한국 서예사의 神品四賢²⁾’ 중 김생이 제일’이라 했고, 조선 후기의 이광사(1705-1777)는 ‘동국필체는 김생을 宗으로 한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허목(1595-1682)은 ‘비단에 쓴 진적이 너무 닳았다’고 했고, 이광사는 ‘진적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 조선 후기에는 주로 복제본으로 김생의 글씨가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초에 집자된 <낭공대사비>가 현재까지 김생 서예 연구의 기준작이지만 그에 대한 역대 품평을 증명할 만한, 이 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비에 나타난 김생 글씨의 참모습을 살피고 그 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비의 글자를 살피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기록과 필적을 알아보자.

II. 김생에 관한 기록과 필적

『삼국사기』에는 “김생은 부모가 미천하여 가문의 내력을 알 수 없다. 711년(景雲 2)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 그는 평생 다른 기에는 닦지 않았으며 80세가 넘어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예서³⁾, 행서, 초서 모두 입신의 경지여서 지금까지도 더러 그의 진필이 남아 있는데 학자들이 보배로 여겨 전하고 있다. 崇寧 연간(1102-1106)에 학사 洪灌이 進奉使를 따라 송나라에 들어가서 汴京(지금의 開封)에 묵고 있었는데, 이때 翰林待詔 楊球, 李革 등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사관에 와서 그림 족자에 글씨를 썼다. 홍관이 그들에게 김생이 쓴 행초 한 권을 보여 주니 두 사람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오늘날 왕우군(왕희지)의 친필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홍관이 말하기를 “아니오. 이것은 신라인 김생이 쓴 것이요?”하니 두 사람이

1) 허정옥, 2010, 「조선시대 김생 서예의 계승」, 『역사문화논총』 6, 역사문화연구소, p.7.

2) 신품이라 불릴 만큼 글씨가 빼어난 경지에 이른 네 사람, 즉 신라의 김생, 고려의 柳伸, 坦然, 崔瑀다. 그중 송광사에 유신의 <보조국사비>, 청평사에 탄연의 <문수원기>만 남아 있다.

3) 당나라에서는 당시 유행한 해서를 예서라 불렀다. 따라서 여기의 예서는 지금의 해서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천하에 왕우군 말고 어찌 이런 묘필이 있겠소?”라고 했다. 흥관이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이 끝내 믿지 않았다”⁴⁾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에서 김생이 언급된 시기는 <낭공대사비> 건립 이후부터다. 고려 문인 이인로(1152-1220)는 “신라 인 김생의 글씨는 초서도 아닌 듯 해서도 아닌 듯 매우 신기로우니 멀리 57종의 여러 명서가들의 체세로부터 나왔다”⁵⁾고 하면서 김생의 필법이 기묘하여 위진 사람들이 발돋움하여 바라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그는 김생이 옛 명서가들의 글씨를 두루 섭렵한 후 행서와 초서에서 자신만의 풍격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신평사헌 가운데 김생을 으뜸으로 친 이규보는 “아침 이슬이 맺히고 저녁연기가 일어나며 성년 교룡이 뛰고 신령스러운 봉황이 난다. 김생과 왕희지는 몸은 비록 다르나 솜씨는 같다. 마음과 손이 서로 응하고 천연이 붙은 것이다. 신기하고 기이하여 말로 전하기 어렵다”⁶⁾고 칭찬했다. 그는 김생의 글씨와 왕희지의 글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았다.

원나라의 조맹부(1254-1322)는 「昌林寺碑跋尾」를 보고 “신라 승려 김생이 쓴 것이다. 그 나라 <창림사비>는 자획이 깊고 전형이 있어 비록 당나라 사람의 유명한 비석이라도 이것을 크게 뛰어 넘지는 못한다”⁷⁾고 극찬했다.

조선 초기의 서거정(1420-1488)은 “우리나라 필법은 김생이 제일이며, 학사 요극일, 승려 탄연과 영업이 그 다음인데, 모두 왕희지를 법으로 삼았다”⁸⁾고 했다. 성현(1439-1504)은 “우리나라에 글씨 잘 쓰는 이는 많지만 해법을 가진 이는 대략 적다. 김생은 작은 글씨를 잘 쓰면서 털끝만한 것도 정밀하다”⁹⁾고 하여 김생이 소해에도 능통했음을 말했다.

조선 중기의 허목은 “김생은 해인사에서 옛 경을 썼는데, 지금까지 천여 년 동안 진적이 많이 전해져 내려왔다. 일찍이 일가인 시랑 허옥여의 집에서 서적을 열람하다가 김생의 진적을 얻어 보았다. 그 글씨의 변동이 신과 같아 필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다”¹⁰⁾고 말했다. 이는 17세기까지 김생의 진적이 있었고, 허목이 본 진적은 신평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이서(1662-?)는 “김생은 偏僻하면서 詭僞하고 왕희지의 아들 헌지처럼 지나친 데가 있으나 우리나라 서예가 중 제일이다”¹¹⁾라고 했다. 서거정과 일치하는 품평이다. 이광사는 “우리나라 필법은 김생

4) 『三國史記』 卷第48 列傳 第8 「金生」.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pp.376-380.

5) 李仁老, 『破閑集』 券上. “鷄林人金生用筆如神 非草非行 迥出五十七種齊諸家體勢.”

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券11 「東國諸賢書訣評論書并贊」. “神品四賢名贊 金生曰 朝露結兮夕煙霏 怒虬擊兮靈鳳騰 金生耶羲之耶 身雖異兮手則同焉 心手相應 付之者天 神哉異哉 言所難傳.”

7) 『東國輿地勝覽』 慶州 古蹟條. “新羅僧金生所書 其國昌林寺碑 字劃深有典型 雖唐人名刻 未能遠過之也.”

8) 徐居正, 『筆苑雜記』 券1. “我東國筆法 金生爲第一 姚學士克一僧坦然靈業亞之, 皆法右軍.”

9) 成俔, 『慵齋叢話』. “我國善書者雖多 而有楷範者蓋寡 金生能書細 而忽皆精.”

10) 許穆, 『眉叟記言』 別集. 券10. “金生書海印寺古經 至今千餘年 其親墨蹟多傳之 嘗於許沃汝侍郎閱書籍 得見金生真籍 其書變動如神 殆非筆力可爲者.”

11) 李滉, 『筆訣』 「評論書家」 正字行書法. “鍾繇質 獻之文 金生僻 唐太宗浮 惟羲之得中.” 「草法」. “張芝質 獻之文 惟羲之得中 張芝正 獻之金生魯公詭 張旭蕩 懷素狂.” 「論前朝」. “金生·靈業·坦然·禪坦·文公裕 金生·靈業·坦然·禪坦學右軍 文公裕雜晉蜀 金生爲第一.” 김상숙·이삼만·이서·이광사 원저, 김남형 역주, 2002,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의 서예비평』, 한국서예협회, pp.61-70.

을 宗으로 여기지만, 오늘날 그의 진적은 전하는 것이 전혀 없다. 榻本에도 奇偉하고 법이 있어 고려 이후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¹²⁾라고 칭찬했다. 김생을 祖宗으로 한다니 서거정, 이서와 같은 의견이다. 홍양호(1724-1802)는 “김생은 동방 서가의 시조다¹³⁾”라고 했다. 서거정, 이서, 이광사의 품평과 일치한다. 이삼만(1770-1847)은 “김생이 소가 산에 있는 밭을 가는 것을 보고 붓은 마땅히 이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글씨 가운데 뛰어난 곳은 왕희지보다 나은 것이 많다¹⁴⁾”고 하여 김생이 밀고 나가야 하는 용필법을 터득했음을 말하면서 왕희지 위에 두었다. 또 “우리나라 김생의 글씨는 옹혼하기 짝이 없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는 듯하니, 조맹부가 <창림사비>를 보고 말하기를 ‘글자의 획이 매우 법도가 있어 비록 당나라 사람의 유명한 비석이라도 이보다 뛰어난 수는 없다’고 했다¹⁵⁾”고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김생이 동방 제일이며, 심지어 왕희지보다 뛰어나다고 품평했다.

김생은 이처럼 고려 초부터 신품제일로 극찬을 받았지만 믿을만한 필적은 <낭공대사비>와 <田遊巖山家序>(이하 <산가서>)뿐이다.¹⁶⁾ <산가서>를 제외한 김생의 필적은 대부분 <낭공대사비>에서 집자했으므로¹⁷⁾ 김생의 진적이 후대까지 많이 전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서와 초서로 쓴 목판본인 <산가서>는 당나라 전유암(670년경)의 「산가서」를 쓴 단독 각첩으로, 서문과 오언율시 형식의 序詩가 이어진다. 말미의 “報德寺 金生 書”는 김생이 보덕사에 있을 때 썼음을 말해 준다. 1443년(세종 25) 안평대군 이용(1418-1455)이 편집한 《匪懈堂集古帖》¹⁸⁾에 이것이 처음 실렸으니 그때 또는 이전에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산가서>는 <낭공대사비>보다 더 활달하고 과감한 필치의 행초로 쓰여 더욱 노련하며, 필세와 풍격이 <낭공대사비>와는 조금 다르다.¹⁹⁾ 그러나 율동미와 변화미를 지닌 <산가서>의 독창적 기법은 <낭공대사비>의 일부 행초 글자에서도 보인다. 이것은 비록 원의에서는 멀어졌으나 친필이기 때문에 김생의 서풍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창림사비>가 김생의 글씨라는 기록은 있으나 실물이나 탁본이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8세기에 김생의 비들이 존재했기에 10세기 중반에 <낭공대사비>를 집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 김생의 전칭자들이

12) 李匡師, 『書訣』 後篇 下. “東國筆法以新羅金生爲宗 今絕無真跡之傳 榻本亦奇偉有法 非高麗以後人可及.” 김상숙·이삼만·이서·이광사 원저, 김남형 역주, 위의 책, pp.262-263.
 13) 洪良浩, 『耳溪集』 卷7 「題白月寺碑」. “夫金生東方書家之祖也.”
 14) 李三晚, 『書訣』. “昔新羅金生 見牛耕山田 覺行筆當如是 其書絕處優於右軍者多矣.” 김상숙·이삼만·이서·이광사 원저, 김남형 역주, 앞의 책, p.313.
 15) 李三晚, 『書訣』. “我東金生書 雄渾絕倫 岳撼海沸 趙孟頫見 昌林寺碑 曰字劃深有典型 雖唐人名刻 不能遠過之也.” 김상숙·이삼만·이서·이광사 원저, 김남형 역주, 위의 책, p.318.
 16) 서동형, 2002, 「金生の 書法-백월서운비와 전유암산가서의 서체미 비교」, 『성신한문학』 6, 한국한문고전학회 참조.
 17) 이완우, 1998a, 「金生과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 『옛 탁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역사』, 韓國의 名碑古拓 論文集, 예술의전당.
 18) 중국의 關帖 등의 휘첩에서 역대 제왕과 魏·晉 이후 名家의 필적 및 신라 이후 명필의 유적을 모아 자신의 당호인 비해당을 붙여 만든 법첩이다.
 19) 이완우, 1998b, 「統一新羅 金生の 筆蹟」, 『선사와 고대』 11, 한국고대학회, p.274.

여럿 있으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집자비는 한 번의 모각 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비교적 원의에 가까워 글자의 참모습을 살피기에 모자람이 없다.²⁰⁾ 이제 <낭공대사비> 글자의 결구와 필법을 통해 김생의 서예를 살펴보자.

III. <낭공대사비>로 본 김생의 서예

1. <낭공대사비>의 개관

한국의 집자비는 통일신라에서 시작된 왕희지 글씨의 집자에서 비롯되었다. 당나라에서 성행한 왕희지 행서 집자의 유행이 신라에도 전해져 8세기부터 집자비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이런 사조는 고려와 조선까지 지속되었다. 중국에서 왕희지 글씨의 집자와 같은 주로 승려들이 담당했는데, 한국도 이 전통을 계승했다.

고려 때부터는 한국 서가의 집자비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것이 김생의 <낭공대사비>다.(그림 1)²¹⁾ 통일신라 효공왕과 신덕왕의 국사인 낭공대사 行寂(832-916)을 기리기 위해 입적 이듬해인 917년 경명왕(재위 917-924)의 명으로 崔仁澆(868-944)이 비문을 지었는데, 나말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건비가 미루어졌다. 고려 초에 문하 범손 純白이 후기를 짓고 승려 端目이 집자하고 승려 嵩太, 秀規, 淸直, 惠超가 새겨 954년에 비가 건립되었다.

자경 2-3cm인 비문은 총 3,416자인데, 序와 詞인 전면은 30행 2,387자, 후기인 후면은 22행 791자, 追記인 좌측면은 5행 238자가 새겨져 있다.²²⁾ 서에는 행적의 가계와 탄생 연기, 출가와 수행, 당나라 유학, 귀국 및 교화, 입적 및 입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속성 최씨인 행적은 832년(흥덕왕 7) 12월 30일 출생했으며, 가야산 해인사 宗師에게 출가했다. 24세인 855년(문성왕 17) 福泉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이후 굴산사 通曉大師 梵日的 제자가 되었다. 渡唐하여 石霜慶諳의 법을 잇고 돌아와 효공왕의 초빙도 받고 김해 호족인 김윤희의 귀의도 받았다. 세수 85세, 승랍 61년인 916년(신덕왕 5) 2월 12일 입적했고, 17일 가매장했다. 이듬해인 917년 11월 개장한 후 제자들의 청으로 경명왕이 탐명과 시호를 내렸다.

좌측면의 추기에 의하면 비는 954년(顯德 원년) 경북 봉화군 명호면 태자사에 세워졌는데, 1509년(조선 중종 4) 8월 당시 榮川郡守 李沆(1474-1533)이 경북 영주군 영천면 후천리 字民樓 아래로 옮기고 직접 추기

20) 목판본과 비각본의 차이와 문제점은 정세근, 2003, 「김생의 서예와 그 집자비의 문제」, 『중원문화연구』 7,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참조.

21) 본고의 실물과 첩본(그림 3)은 경주시 왕경사업부가 2017년 8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한 것이다. 동 박물관에는 근래의 첩본(구 5816)도 있는데, 거기에는 후기 대신 추기가 있다.

22) 한국사연구회 편, 1996, 『太子寺鄜空大師白月樓雲塔碑』,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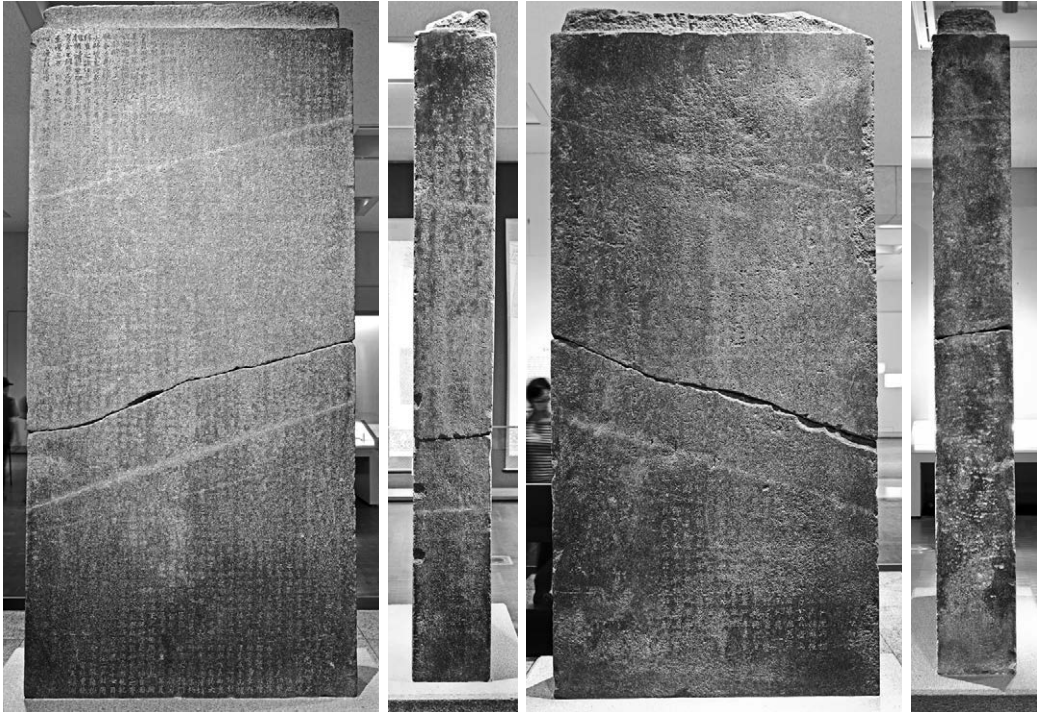


그림 1. 김생. 태자사상공대사백월서운탑비 전면·좌측면·후면·우측면, 최연연·순백 찬, 단목 집자, 954, 203×97×24cm, 보물 제1877호, 국립중앙박물관

를 짓고 朴訥이 글씨를 썼다.²³⁾ 일제강점기인 1919년 경복궁으로, 1986년 박물관 수장고로,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상설 전시 중이다. 비의 발견과 이전 경위를 적은 추기는 당시 비의 위상을 말해 준다.

내가 어릴 때 김생의 필적을 《匪懈堂集古帖》에서 얻었다. 용이 뛰고 호랑이가 누워있는 그 기세를 좋아했으나,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많지 않음을 한탄했다. 영주에 와서 이웃 읍인 봉화현에 비가 홀로 옛 절의 남은 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김생의 글씨였다. 나는 그 세상에 드문 보배가 잡초 사이에 매몰될까 안타까웠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 들소의 뿔에 부딪힐까, 목동이 지른 불에 그을릴까 모두 염려되었다. 마침내 군 사람인 전 參奉 權賢孫과 같이 이전을 모의하여 자민루 아래에 안전하게 옮기고 난간을 두르고 출입문을 단단히 잠갔다. 탁본하는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금했고, 함부로 만지고 침범할까 두려웠다. 이로 인해 김생의 필적이 세상에 널리 전해졌고, 양반의 호사가들이 앞을 다투어 감상하러 왔다. 아! 천백

23) 『蓮潭李先生文集』附錄에 전하는 李沆의 『洛西軒遺稿』, 南九萬의 『藥泉集』, 한국국학진흥원의 『韓國金石文集』에도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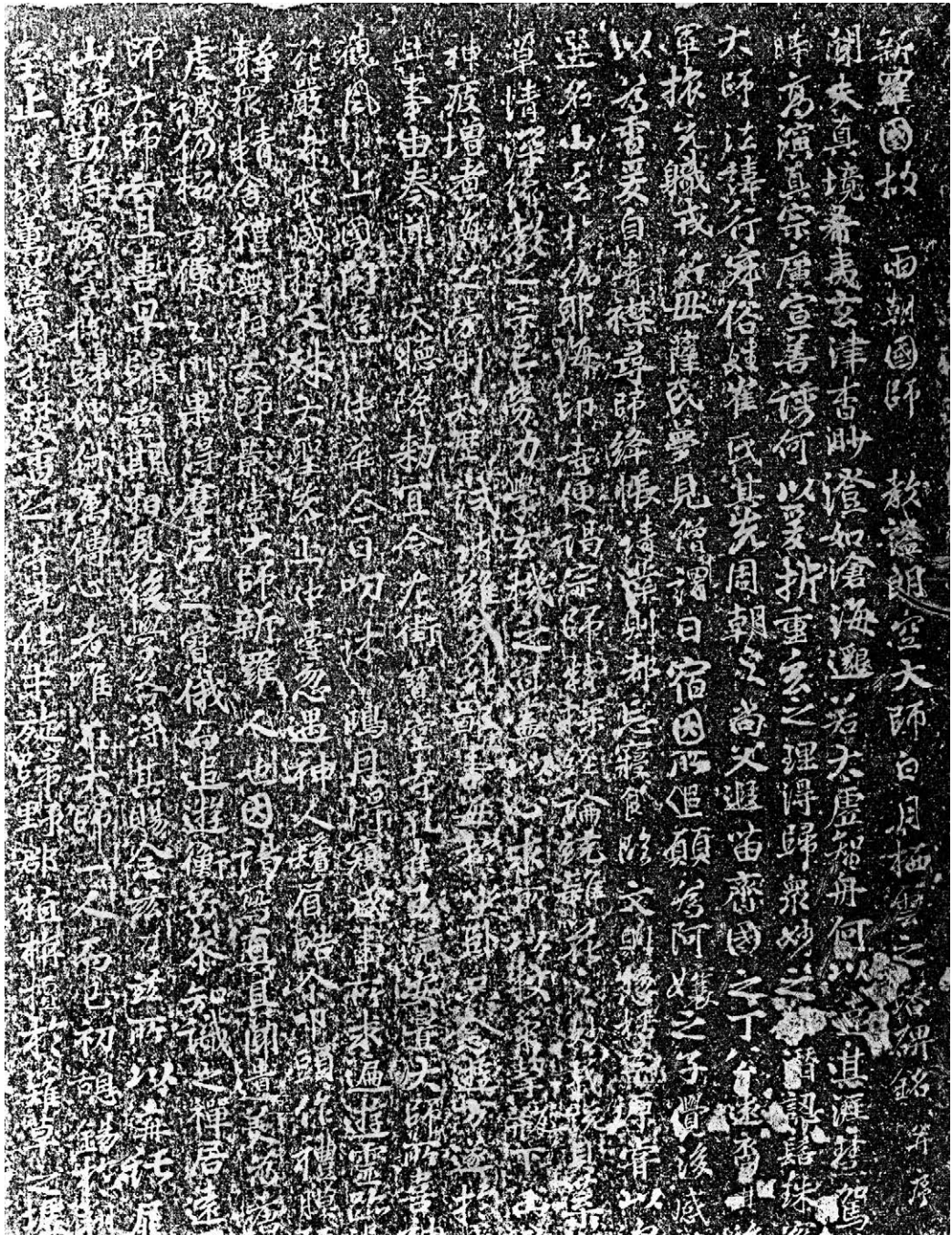


그림 2.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전면 탁본

년 동안 으스스한 골짜기에 버려진 돌이 하루아침에 큰집으로 옮겨져 세상의 보물이 되었으니, 대저 물건의 나타나고 숨겨지는 것 또한 그 운수가 있나 보다. 나는 비록 재능이 없어

蔡(韓愈)의 박식하고 우아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물건을 우연히 만나 완상하게 된 것은 진실로 岐山의 石鼓²⁴⁾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²⁵⁾

이처럼 추기는 <낭공대사비>가 세상의 보물임을 말하는데, 양면의 약 3,180자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의 여러 탁본²⁶⁾이 전하는데, 그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국립중앙박물관본(그림 3)으로 김생의 글씨를 살펴보겠다.

2. <낭공대사비>의 서체와 서풍

이 비는 왕희지풍에 바탕을 둔 행서비로 알려졌지만²⁷⁾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해서와 행서가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행서비로 알려진 것은 글자를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첫머리가 행서로 시작되고 운필의 범위가 넓은 행서가 주로 눈에 띄었기 때문인 듯하다.

『삼국사기』는 ‘예서, 행서, 초서가 모두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선행 연구는 왕희지 글씨와 비견된 일화 때문에 행서와 초서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예서(지금의 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비가 행서비라는 인식에 갇혀 거기에 해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비에 쓰인 행해와 해행이 혼재된 해서와 행서를 더 세밀히 살펴보면 김생 글씨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김생 글씨의 특징이 분명히 밝혀진 후라야 왕희지 글씨와의 비교나 우열을 논하는 것이 더욱 유의미할 것이다.

김생은 행서 이전에 분명 해서를 익혔을 것이고, 이 비에 그것이 어떤 해서인지 보여 주는 글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또 글자의 좌변이나 우방, 위나 아래에 해서와 행서를 혼합한 글자들도 많아 행해, 해행 등 모든 서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탁월한 솜씨를 보여 준다. 특히 순백이 지은 후기의 글씨는 더 노련하고 능숙하여 김생 글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좌측 또는 상부가 행서로, 우측 또는 하부가 해서로 쓰인 글자들과 그 반대인 글자들도 많다. 이것이 집자로 인한 것이 아닌 김생의 원래 글자라면 그는 행서에서 해서로, 해서에서 행서로 구애됨이 없이 오갈 수 있는 노련함을 지녔음이 분명하다. 이제 <낭공대사비>의 글자들을 서체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먼저 해서를 보자(표 1). <낭공대사비>의 해서에는 세 가지 서풍이 있다. 첫째, 북위풍이다. 기필과 수필, 그리고 획간에 행서의 필의가 있어도 해서로 분류되는 글자들은 가로획이 많은 일부 글자 이외에는 대부분

24) 북 모양의 돌에 새긴 10개의 비갈인 <석고문>을 말한다. 중국 最古 각석으로 주나라 宣王이 기양에 사냥 갔을 때 그 업적을 칭송한 시다. 서체가 대전과 소전의 중간이므로 초학자들의 입문서다.

25) 이지관,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한국사연구회 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혜안 참조.

26) 성인근, 2007, 「〈白月樓雲塔碑〉의 전래과정과 전승유형」, 『서예학연구』 10, 한국서예학회.

27) 이완우, 1998b, 앞의 글, p.272. 김생의 글씨에 대한 연구는 이호영, 1998, 「金生의 墨痕과 足跡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11, 한국고대학회; 박명홍, 2010, 「김생의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 서풍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복, 2015, 「김생 서예의 형태미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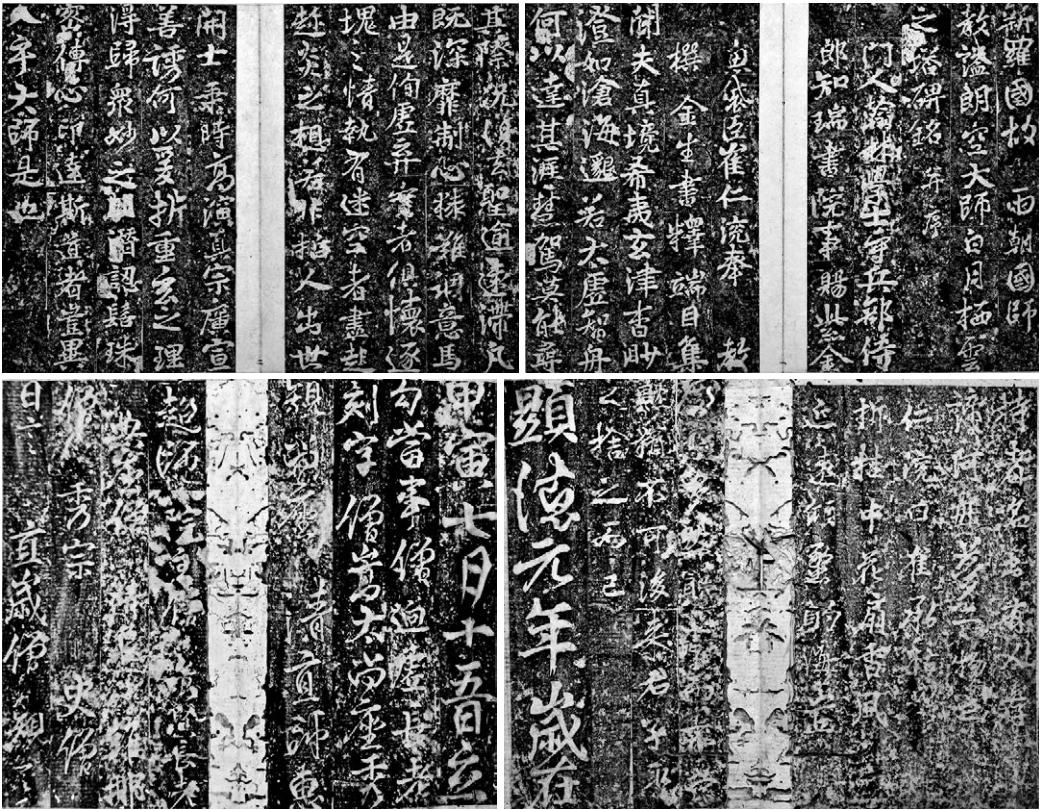


그림 3.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문답비 첩본 전면(상)·후면(하), 국립중앙박물관(1916년 입수)

정방형 또는 편방형을 띠고 있어 장방형인 唐楷와 구별된다. 또 필획은 굵으면서 역동적 기운이 넘쳐 가면서 딱딱한 당해 필획과 상이하다. 이처럼 웅강무미한 북위풍이 이 비 해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方筆과 圓筆을 겸비한 북위풍 글자들은 다양한 서풍을 보여 주는데, 주로 석비, 묘지, 용문조상기의 글씨와 닮은 점이 많다. ‘引’은 〈孫遵浮圖銘記〉, ‘慈’는 용문석굴 자향동의 〈慈香慧政造像記〉(520) 글자와 유사하다. 특히 후기에서 ‘是’의 하부, ‘屬’의 尸에 쓰인 과감한 운필은 하부를 안정적으로 쓰는 보편적 결구를 넘어선 구애됨이 없는 파격적 운필이다. 마치 북위의 원필인 〈石門銘〉(509)이나 방필인 〈張猛龍碑〉(522) 후면을 보는 듯하다.

신라에서 연대가 확실한 북위풍 해서는 〈남산신성비제10비〉(591)가 처음이며, 이성산성 출토 〈‘무진년’ 목간〉(608)에서도 행서의 필의가 가미된 웅건한 북위풍이 사용되었다. 또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에 걸쳐 작성된 경주 월성해자,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도 북위풍이 사용되었다.²⁸⁾ 그리고 김생으로 인해 북위풍

28) 정현숙, 2016, 『신라의 서예』, 다운샘, p.134; 2018,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pp.399-402; 2018c,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p.309.

해서가 8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김생은 8세기에 이미 신라에 정착한 당체가 아닌 6세기 후반부터 신라에 전해진 북위 해서를 공부했음을 <낭공대사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안진경풍이다. 초당 해서와는 상반되는, 김생과 동시대 서예가 顏真卿(709-785)의 풍후한 서풍도 보인다. ‘千’, ‘十’, ‘阿’, ‘文’ ‘부’의 가로획, ‘宇’의 둘째 가로획, ‘美’의 셋째 가로획의 수필은 붓을 아래로 꼭 눌렀다 회봉하는 안진경의 필법이다. ‘國’, ‘項’은 向勢로 쓰였는데 이것도 안진경 필법 중 하나다. 역시 왕희지를 터득한 안진경은 집안이 장안이었기에 그 글씨의 웅강함은 북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김생의 해서가 웅강한 북비풍을 지닌 것과 일치한다. 이는 동시대 당풍이 신라에 실시간으로 입수되었음을 보여 주는데, <성덕대왕신종명>(771)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안진경풍이 이를 증명한다.²⁹⁾

셋째, 고신라풍, 즉 6세기 신라비의 서풍이다. 상부의 인과 하부의 자가 독특한 ‘畝’는 <단양적성신라비>와, ‘身’은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와 흡사하다. 김생은 북위풍과 당대의 안진경풍을 배웠지만, 당연히 이전의 신라 글씨도 공부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서풍을 지닌 김생 해서의 다양한 모습과 필법은 동일자 분석을 통해 더 상세히 살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필세의 웅강무말함, 운필의 노련함, 결구의 다양함, 변형의 파격미를 지닌 김생의 해서는 북위풍과 안진경풍을 넘어 자신의 서풍을 구사하고 있으니, 이는 김생 글씨의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옥동 이서가 김생의 해서를 ‘편벽되다’는 의미를 지닌 ‘僻’이라 평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해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로 김생은 ‘치우치다’, ‘지나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길 정도로 과감한 필법을 구사했다.

표 1. <낭공대사비>의 해서 글자



29) 정현숙, 2018b, 「통일신라 범종 명문의 서풍 변화」, 『서예학연구』 33, 한국서예학회, pp.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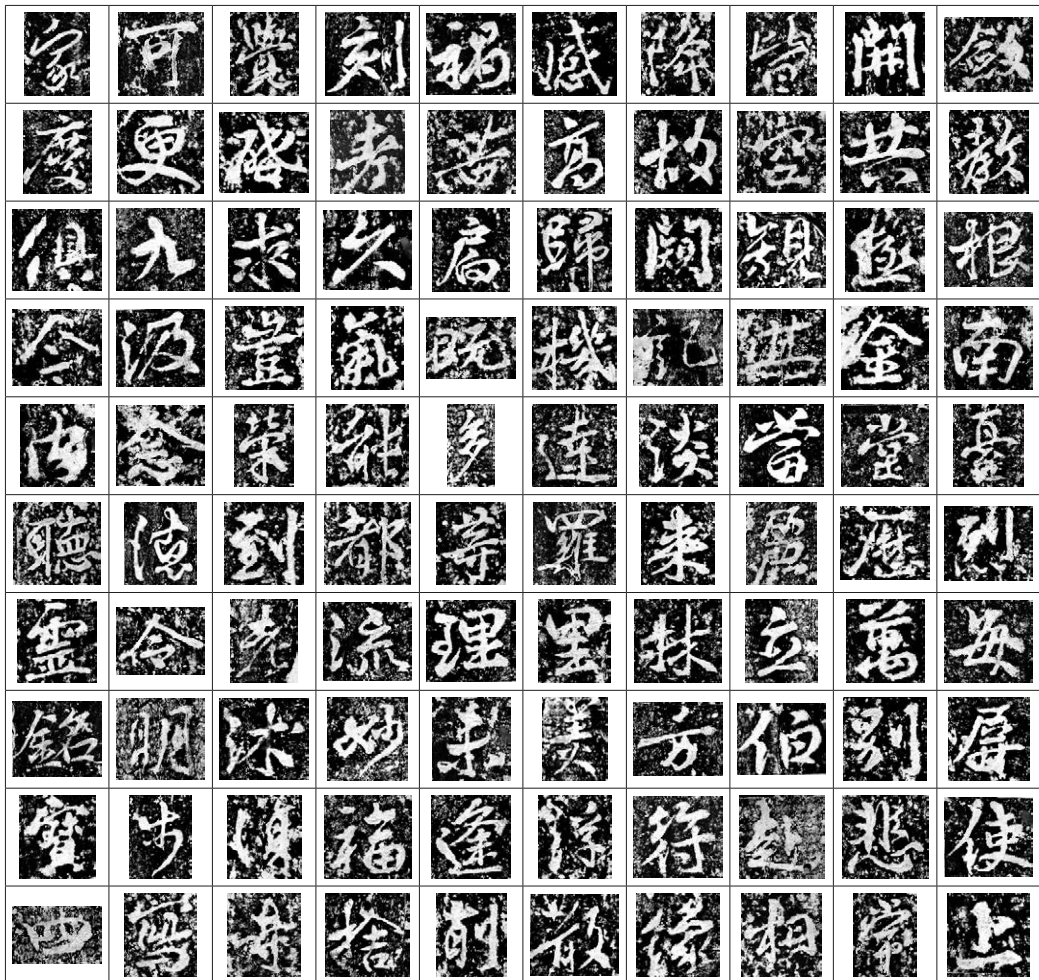




다음으로 행서를 보자(표 2). <낭공대사비>의 행서는 유미하고 절제된 왕희지 행서보다 구애됨이 없는 왕헌지 행서에 가깝고, 힘찬 안진경의 행초와 유사한 점도 있다. 그 과감함과 역동성은 후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후기의 ‘寵’은 용이 꿈틀거리면서 승천하는 듯한 모습이며, ‘霧’는 역동적 오름을 연상시킨다. 통상적 결구에 반하는 글자가 많은 것도 김생 행서의 특징 중 하나다. ‘道’, ‘遺’, ‘遊’ 등에서 부수인 辵의 파책을 길게 써 안정된 결구를 취하는 보편적 필법과는 달리, 파책을 짧게 써 상부가 강조되고 글자가 불안정한 것이 그 예다.

이처럼 <낭공대사비>는 김생의 해서와 행서 글자로 집자되었으며, 해서에는 행서 필의가, 행서에는 해서 필의가 있다. 따라서 이 비가 행서비라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왕희지의 행서로 집자된 <집자성교서>와 구별되는 점이다.

표 2. <낭공대사비>의 행서 글자





3. <낭공대사비>의 동일자 비교

이제 비문의 동일자 비교를 통해 김생이 쓴 해서와 행서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비의 양

면에서 5번 이상 사용된 60여 자의 결구, 운필, 필법, 필세 등을 통해 김생 글씨의 미감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살펴 볼 글자는 가나다순이다.

첫째, '乾' 자다(표 3). 총 5번 중 비문(전면)에 1번, 후기(후면)에 4번 나온다.³⁰⁾ 모두 복위풍 해서며, 행서의 필의가 강한 후기 글자들은 획간이 더 무밀하면서 노련하다. 획의 경사와 위치, 획간의 여백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힘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비문의 글자보다 후기의 글자들이 더 능숙하고 노련하다.

표 3. '乾' 자






				
해서	행해(후)	행해(후)	행해(후)	행해(후)

표 4. '高'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둘째, '高' 자다(표 4). 총 6번 중 비문에 4번, 후기에 2번 사용되었다. 모두 행서지만 해서 필의가 있는 것과 흘림이 강한 것으로 나뉘지는데, 이는 왕희지의 <集字聖教序>(672)나 <興福寺斷碑>(721)와 유사하다. 그러나 후기에서 하단으로 가기 위해 유난히 둥근 곡선을 구사한 것은 왕희지에게는 없는 김생만의 역동적이면서 독특한 운필이다.

셋째, '教' 자다(표 5). 비문에만 5번 쓰였는데, 모두 행서다. 좌측 상단의 土 부분의 굽기와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우측 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와 필법을 사용했다. 다만 좌우 사이의 여백은 조금씩 달라 疏密을 동시에 표현했다.

표 5. '教'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30) 이하 각 글자의 횡수는 허흥식, 1984, 『韓國金石全文』 中世上를 참고한 것이다.

표 6. '求' 자

해서	행해	행서	행서	행서	행서

넷째, '求' 자다(표 6). 비문에만 6번 쓰였는데, 대부분 행서고 해서에도 행서의 필의가 있다. 첫 획인 가로 획이 해서보다 행서에서 훨씬 길어 해서는 장방형이고, 행서는 정방형이다. 또 행서는 첫 획과 둘째 획이 만나는 곳의 상부 획의 길이가 더 길다. 마지막 글자는 起筆부터 收筆까지 모두 連筆로 구사하여 行氣가 가장 강하다.

다섯째, '國' 자다(표 7). 총 21번 중 비문에 7번, 후기에 14번 나온다. 해서와 행서가 고루 쓰였는데, 후기에 해서가 많다. 행서는 향세가 강한데 이는 왕희지, 안진경과 닮은 점이다. 첫 획을 | 또는 ㄴ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는데, 전자는 안진경의 <忠義堂帖>에, 후자는 왕희지의 글씨에 보인다.

표 7. '國' 자

행서	행서	행서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8. '其'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해	행해	행해	행해	행해(후)

여섯째, '其' 자다(표 8). 총 21번 중 비문에 18번, 후기에 3번 나온다. 모두 해서인데, 그중 절반은 속의 두 가로획을 행기가 있는 점으로 이었다. 상부가 크고 강하며, 하부의 두 점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불안정하다. 주로 첫 가로획은 원필로, 둘째 가로획은 방필로 썼다. 두 가로획의 길이가 비슷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둘째 가로획의 필세가 仰勢인 것과 平勢인 것, 하단의 두 점 간격이 좁은 것과 넓은 것의 변화가 있어 매 글자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다. 여섯째, 일곱째 글자의 둘째 가로획 수필에서 꼭 누르고 回鋒하는 필법이 안진경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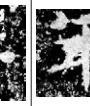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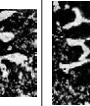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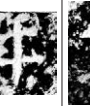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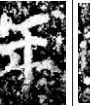



일곱째, 우측에 隹가 쓰인 '難', '雖', '唯' 자다(표 9). 각각 6번, 4번, 4번 사용되었다. 隹는 첫 글자를 제외하고 모두 행서 필법이다. 둘째 글자처럼 해서에 행서의 隹가 사용된 것은 특이하다.³¹⁾ 행서에서는 왕희지,

왕헌지, 당 현종의 隹와 유사하지만 김생의 운필이 더 과감하고 투박하다. 왕희지에게는 없는, 후기 ‘難’ 자 좌측의 파격적·생동적 필법은 李滌가 김생의 행서를 왕헌지, 안진경과 더불어 詭(기괴함)로 표현한 평에 부합한다.

표 9. ‘難·雖·唯’ 자

										
해서	해서	행해	행해	행서	행서(후)	해서	행서	행서	해서	행서

표 10. ‘年’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여덟째, ‘年’ 자다(표 10). 총 17번 중 비문에 13번, 후기에 4번 나오는데, 모두 해서로 쓰였다. 가로획이 길어 정방형 글자가 많은 것은 북위 해서의 특징 중 하나다. 대부분 仰·卍·俯勢를 취해 전체적으로 힘차다.

아홉째, ‘大師’, ‘大王’, ‘國師’다(표 11). 낭공대사를 칭하는 ‘大師’는 가장 빈번하게 쓰인 글자로 총 31번 중 비문에 27번, 후기에 4번 나온다. 한 글자씩 보면 ‘大’가 44번, ‘師’가 56번 등장한다. ‘大’는 해서와 행서로, ‘師’는 행서로만 쓰였다. ‘大’는 셋째 획이 파책인가, 점인가에 의해 해서와 행서로 대략 구분되어지고, ‘師’는 행기가 적은 행서와 많은 행서 등 다양한 모습인데 두 글자를 상하에 적절하게 두어 반복되는 ‘大師’에 변화를 주었다. ‘國師’에서도 ‘國’은 해서와 행서, ‘師’는 행서로만 쓰였는데, 이 비에는 해서 ‘師’가 없다.

‘大王’에서는 ‘大師’처럼 ‘大’는 해서와 행서를 혼용했지만 ‘王’은 ‘大師’에서 ‘師’를 행서로만 쓴 것과는 반대로 해서로만 쓰였다. 그렇다고 사용된 모든 ‘王’이 정방형의 해서는 아니다. 표 36에서 보듯이 장방형의 행서로 쓰기도 했다.

31) 隹에서 행서가 주로 쓰인 것은 김생의 원래 글자일 수도, 좌우를 따로 모은 집자승 단목의 선택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결과적으로 좌우의 서체 조합이 다양하여 같은 글자에 변화를 주고자 한 의도가 있다.

표 11. '大師 · 大王 · 國師' 자

해+행	해+행	해+행	해+행	해+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	행+행(후)	행+행(후)	행+행(후)	해+해	해+해	행+해	행+행	해+해(후)

열째, '道' 자다(표 12). 비문에만 13번 나오는데, 대부분 행서로 쓰였다. 첫 글자는 讠의 파책을首의 셋째 획인 가로획과 비슷하게 뺀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둘째 글자는 讠을 짧게 구사하여 필획이 절제되긴 했으나 안정감이 부족하다. 讠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首의 셋째 획인 가로획의 경사도 평세부터 양세까지 다양한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서 그 극명한 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정방형의 복위풍인 첫 글자는 장방형인 구양순의 '道'와는 확연히 다르다. 구양순의 '道'처럼 讠의 파책을 首보다 길게 뺀어 하부를 받쳐주는 안정적 모습이 보편적 결구인데, 김생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격적 결구를 취했다.

표 12. '道' 자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표 13. '同'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열한째, '同' 자다(표 13). 총 7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1번 나온다. 모두 복위풍 해서로 쓰였다. 넷째 글자만 장방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방형이며, 둘째, 넷째 글자의 口 첫 획에만 連筆로 인한 행서의 필의가 조금 있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유사하다.

열두째, '來' 자다(표 14). 총 11번 중 비문에 9번, 후기에 2번 나온다. 모두 連筆이 드러나는 완연한 행서로 쓰였다. 한 글자 안에서도 획의 굵기에 변화가 많지만, 각 글자에도 변화가 많아 같은 서체지만 웅건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한다. 첫 자와 끝 자에 이런 차이가 극명하다.

표 14. '來' 자

해행	해행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표 15. '名' 자

해서	해서	해서	행해	행해	행서	행서	행서	해서(후)

열셋째, '名' 자다(표 15). 총 9번 중 비문에 8번, 후기에 1번 나오는데, 해서와 행서가 혼용되었다. 획의 굵기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구가 비슷해 전체적 분위기가 닮았다. 둘째 획인 卩침과 口의 위치가 비슷하거나 口가 卩침보다 더 높은 것은 복위 해서의 특징이다.

열넷째, '無' 자다(표 16). 비문에만 9번 사용되었다. 대부분 행서로 쓰였는데, 각 글자가 모두 다른 결구와 운필을 취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둘째, 셋째 글자에 행서의 필의가 있으나 복위 해서에 이미 이런 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행서에서도 흘림의 정도, 획의 굵기, 획간 연결 정도, 획의 생략 정도가 다 달라 같은 서체에서도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체적으로는 해서에서 행서로 변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표 16. '無' 자

해서	행해	행해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표 17. '門·問·聞' 자

행해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열다섯째, 門이 사용된 '門', '問', '聞' 자다(표 17). 각각 14번, 2번, 6번 등장하는데 투박한 김생 행서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쓴 첫 글자 '門'은 복위 <원흠모지>와 닮았다. 필획의 굵기, 획간의 연결에서 변화를 줬지만 같은 글자지만 각기 다른 느낌이다. '問'의 口가 역삼각형인 것이 특이한데 이는 <단양적성신라비>(550년경), <남산신성비제1비>(591)와 유사하다.³²⁾ '聞'의 耳는 좌측 세로획의 굵은 정도로 변화를 주었는데, 여백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웅강무밀하고 역동적이다.

열여섯째, '法' 자다(표 18). 총 10번 중 비문에 7번, 후기에 3번 나오는데, 해서보다 행서가 많다. 彳와 去의 연결 부분에 필흔이 생략된 것과 보이는 것이 있어 단호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후기에는 連筆이 노출되어 있는데, 마지막 글자는 획과 연결 부분의 구분이 없어 곡선미가 돋보인다. 각 글자는 획의 굵기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기에 전체적 분위기도 많이 다르다.

표 18. '法' 자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19. '不' 자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32) 정현숙, 2016, 앞의 책, p.129, p.132.

열일곱째, ‘丕’ 자다(표 19). 총 13번 중 비문에 11번, 후기에 2번 나온다. 행서의 필의를 지닌 해서와 행서로 쓰였다. 정방형에 네 획의 표현이 거의 비슷하여 전체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러나 첫 획을 평세 또는 앙세로, 세로획을 鈎劃, 垂露 또는 懸針으로 쓰고, 하단 세 획의 높낮이를 조금씩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세로획이 유난히 굵어 힘차 보이는데, 북위 <魏靈藏造像記>(500-503), <鄭羲下碑>(511), <馬鳴寺根法師碑>(523)와 유사하다.

열여덟째, ‘碑’ 자다(표 20). 총 11번 중 비문에 3번, 후기에 8번 나온다.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石을 원필의 해서로 썼고 첫째, 둘째 글자 우측 하단의 필획이 나머지 글자들과는 다르다. 후기의 결구에는 큰 차이가 없어 전체적 분위기가 비슷하다. 다만 획의 굵기를 달리하고 田의 轉折을 방필과 원필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표 20. ‘碑’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표 21. ‘事’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열아홉째, ‘事’ 자다(표 21). 총 11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5번 나온다. 모두 비슷한 결구의 행서로 쓰였으나 첫 획의 길이, 방필과 원필로 변화를 주었다.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다양한 모습은 김생의 탁월함과 유창함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

스무째, ‘山’ 자다(표 22). 총 20번 중 비문에 17번, 후기에 3번 나온다. 모두 해서의 필의가 있는 행서로 쓰였고 형태도 비슷하다. 굵은 첫 획은 중앙에서 굳건히 중심을 잡아 주고, 그 아래 좌우 획은 향세를 취한다. 그 사이 가로획은 양·평·부세를 두루 갖추고 있어 동질감 속에 이질감이 느껴진다. 웅건한 향세의 ‘山’에는 김생만의 독특함이 있다.

표 22. '山'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표 23. '尙' 자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스물한째, '尙' 자다(표 23). 총 8번 중 비문에 3번, 후기에 5번 나온다. 모두 행서로 후기 운필의 과감함과 유창함이 돋보인다. 특히 상부에서 하부로 가기 위한 연결 부분과 하부의 첫 획 사이의 여백은 독특한 공간 조성법이다. 후기의 앞 두 글자처럼 입을 굴려서 힘찬 원으로 쓴 것도 독특하다.

스물둘째, '生' 자다(표 24). 총 12번 중 비문에 10번, 후기에 2번 나온다. 모두 행서로 운필법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첫 획의 길이와 行筆의 각도가 다르며, 중간의 둘째 가로획의 굴림 정도를 달리하여 직선, 반원, 또는 원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글자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이런 다양한 모습에서 김생의 특출한 미감을 엿볼 수 있다.

표 24. '生'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표 25. '栢' 자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스물셋째, '栢' 자다(표 25). 비문에만 9번 사용되었는데, 해서보다 행서가 많다. 해서인 첫 자는 꾸밈없이 투박하다. 행서인 나머지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인데, 거칠면서 역동적인 붓놀림이 자유자재하다. 유려한 왕희지의 행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스물넷째, ‘聖’ 자다(표 26). 총 11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5번 나온다. 해서보다 행서가 훨씬 많다. 상부 좌측 터가 모두 행서 필의인 점은 같고 터 좌측 세로획의 굵은 정도를 조금씩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대략 양·평·부세를 취한 허부의 王은 가로획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긴 것은 안정감이 있고 짧은 것은 글자의 전체 자형이 역삼각형이다. 왕희지의 <집자성교서>에는 역삼각형만 보이는데, 김생은 더 다양한 결구를 구사했다.

표 26. ‘聖’ 자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해/행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27. ‘所’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스물다섯째, ‘所’ 자다(표 27). 총 20번 중 비문에 15번, 후기에 5번 나온다. 해서와 행서로 쓰인 글자의 결구가 대략 유사하고, 흘림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다. 첫 획을 직선이나 곡선, 그리고 양·평·부세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후기에 행서의 필법이 더 농후한 것도 양면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물여섯째, ‘僧’ 자다(표 28). 총 11번 가운데 각자승이 6명인 관계로 후기에 8번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행서다. 둘째, 셋째 글자의 曾 가운데 부분의 안을 × 모양으로 쓴 것이 독특하다. 후기에서는 丨의 직선미와 曾의 곡선미가 어우러진 유창한 운필이 돋보인다. 曾의 허부 日에서도 변화를 주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과감하면서 대범한 결구도 김생 글씨의 특징이다.

표 28. ‘僧’ 자

행해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29. '時'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스물일곱째, '時' 자다(표 29). 총 8번 중 비문에 7번, 후기에 1번 나온다.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와 행서로 쓰여 해서에서 행서로의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좌측 日의 필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우측 상부의 土가 좌측으로 기울어진 것은 공통적이다. 寸에서 점의 위치를 조금씩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고, 전체적으로 필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이 있다. 후기에서 日의 전절의 등금과 寸의 구획에서 점으로 가는 운필의 등금이 일체감을 준다.

스물여덟째, '神' 자다(표 30). 총 8번 중 비문에 7번, 후기에 1번 나온다. 좌측 示는 행서로, 우측 申은 원필의 해서로 썼다.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위치나 획의 굵기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깨트린다. 특히 첫 획과 둘째 획 사이의 여백이 좁은 것에서 점차 넓은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도 흥미롭다. 후기의 글자가 가장 노련하다.

표 30. '神' 자

행해	행해	행해	행해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표 31. '心' 자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스물아홉째, '心' 자다(표 31). 총 13번 중 비문에 12번, 후기에 1번 나온다. 행서가 많은 편이다.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連筆에서 직선과 곡선을 혼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간단한 글자지만 운필에서 유창함이 드러난다.

서른째, '深' 자다(표 32). 비문에만 6번 나오는데, 모두 행서지만 흘림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冫을 다르게 표현하고, 그것과 우측 글자 사이의 여백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느낌이다. 절제된 행서에서 과감한 행서로 점차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표 32. '深'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표 33. '也' 자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서른한째, '也' 자다(표 33). 총 13번 중 비문에 8번, 후기에 5번 나온다. 두 글자는 해서로, 나머지는 행서로 쓰였다. 마지막 획의 처리로 인해 비문의 글자에는 절제미가, 후기의 글자에는 자유자재함이 있다. 각 글자의 連筆 부분이 조금씩 달라 색다른 느낌을 준다.

서른둘째, '於' 자다(표 34). 총 37번 중 비문에 25번, 후기에 12번 나온다. ㅃ 은 해서나 행서로, 우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행서의 필로 쓴 글자들이 많다. 특히 후기의 글자는 대부분 좌우의 조합이 유창하고 전체적으로 필치가 능통하다.

표 34. '於'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해(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35. '日'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해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행해(후)

서른셋째, '日' 자다(표 35). 총 17번 중 비문에 11번, 후기에 6번 나온다. 모두 웅건한 해서로 쓰였으며,

부분적으로 행서 필의가 있는 글자도 있다. 무밀한 세로획이 수직은 물론 向勢, 背勢도 갖춰 단순한 글자지만 다양한 필세로 다름을 표현했다. 후기가 비문보다 더 변화가 많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서른넷째, ‘王’ 자다(표 36). 총 11번 중 비문에 5번, 후기에 6번 나온다. 孝恭大王, 神德大王, 聖考大王, 景明王, 元聖王, 憲康王 등 왕명에 주로 사용되었다. 비문과 후기 모두에 웅건한 해서와 유창한 행서가 고루 쓰였다. 북위풍의 해서에서 마지막 가로획 垂筆을 꼭 누르고 回鋒하는 필법은 안진경의 그것과 유사하다. 행서도 노련한 솜씨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표 36. ‘王’ 자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해서(후)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37. ‘雲’ 자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해(후)	행해(후)	행서(후)

서른다섯째, ‘雲’ 자다(표 37). 총 9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3번 나온다. 비문에 행서가 더 많고, 후기에서는 상부의 雨가 오히려 정연하다. 하부의 云의 크기, 획의 길이, 행필의 기울기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서른여섯째, ‘遠’ 자다(표 38). 총 12번 비문에 10번, 중 후기에 2번 나온다. 해서와 행서에서 辵의 형태가 다르다. 행서에서는 한 획처럼 辵 모양으로 썼는데, 세로의 모양이 다양하고 가로는 윗부분보다 짧아 불안정하다. 해서처럼 통상 辵의 파책을 길게 하여 상부를 안정적으로 받쳐 주는데, 이것에 반하는 것이 辵이 사용된 김생 행서의 특징이다.

표 38. ‘遠’ 자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표 39. '月' 자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서른일곱째, '月' 자다(표 39). 총 17번 중 비문에 10번, 후기에 7번 나온다. 행서 필의가 있는 북위풍 해서와 행서로 쓰였다. 특히 후기는 모두 행서인데, 반듯하게 선 '月'보다 비스듬히 누워 반달을 연상시키는 김생 특유의 '月'은 후기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형태의 '月'은 어디에서도 없으므로 김생만의 고유한 글자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유로 복원된 경주 월정교의 <월정교> 현판 '月'에도 이 글자가 사용되었다.³³⁾

서른여덟째, '爲' 자다(표 40). 총 14번 중 비문에 11번, 후기에 3번 나오는데 모두 행서로 쓰였다. 시작 부분의 두 점을 떼기도 하고 잇기도 하고, 한 획으로 처리한 하부의 네 점은 점, 짧은 획, 긴 획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여 글자의 모습이 각각각색이다. '爲'는 김생의 행서가 얼마나 유창한지 잘 보여 주는 여러 글자 가운데 하나다.

표 40. '爲'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41. '謂'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서른아홉째, '謂' 자다(표 41). 총 9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3번 나온다. 후기의 한 글자만 해서로, 나머지는 행서로 쓰였다. 言에서는 점차 획을 간략하게 쓰는 것을 보여 주고, 우측 상부 田의 안을 ×로 변형한

33) 정현숙, 2018a, 「김생과 최치원, <월정교>로 부활하다」, 『먹의 배와 붓의 향기』, 다온샘.

것도 있어 이채롭다. 표 28의 ‘僧’과 같다. 다섯째 글자 우측 하부의 月에서 첫 획의 길이를 짧게 하여 안의 점과 더불어 ㄴ 모양인 것은 月이 부분으로 쓰일 때의 김생 필법의 특징이다. 靑이 쓰인 표 55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취했다.

마흔째, ‘有’ 자다(표 42). 총 17번 중 비문에 14번, 후기에 3번 나오는데, 모두 행서로 쓰였다. 가로획과 삐침의 위치, 길이, 굵기, 기울기에서 변화를 주고 月을 평세나 향세로 달리 표현했으나 전체적 분위기는 비슷하다. 운필의 능통함에서 김생의 특출함을 느낄 수 있다.

표 42. ‘有’ 자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43. ‘以’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마흔한째, ‘以’ 자다(표 43). 총 28번 중 비문에 24번, 후기에 4번 나온다. 좌측을 口의 흘림으로 쓴 행서가 세 자 있고, 나머지는 해서로 쓰였다. 좌우의 높낮이와 벌어진 각도, 첫 획의 입필에서 변화를 주어 글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비슷하다. 이는 간단한 획으로 구성된 글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흔둘째, ‘異’ 자다(표 44). 비문에만 6번 나온다. 대부분 해서로 쓰였고 몇 글자에 약간의 행기가 있다. 결구는 동일하고 정방형과 장방형, 획의 굵기, 원전과 방절, 흘림의 정도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 분위기는 대략 비슷하다.

표 44. '異'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표 45. '而' 자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마흔셋째, '而' 자다(표 45). 총 18번 중 비문에 12번, 후기에 6번 나온다. 행서가 주를 이룬다. 흘림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하부의 첫 획을 분명하게 또는 느슨하게 표현했으며, 가로획에 다양한 곡선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유사하다.

마흔넷째, '人' 자다(표 46). 총 27번 중 비문에 17번, 후기에 10번 나온다. 해서와 행서의 구별은 파책에서 결정되는데, 후기에 행서가 훨씬 많다. 비문은 해서에서 행서로 변하는 과정을, 후기 행서는 파격적 필법과 대담한 운필을 보여 준다. 두 획으로 구성된 간단한 글자지만 해서의 정연함과 절제미, 행서의 투박함과 강건미가 좋은 대비를 이룬다.

표 46. '人'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47. '自'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마흔다섯째, '自' 자다(표 47). 총 9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3번 나오는데, 대부분 해서로 쓰였다. 첫 획의 독특함이 거의 단순함을 흡수하여 글자가 다양하게 보인다.目は 대부분 향세며, 대신 획의 굵기, 전절의 모양 그리고 目 안 두 가로획의 길이에서 변화를 주었다.

마흔여섯째, '者' 자다(표 48). 총 18번 중 비문에 9번, 후기에 9번 나온다. 대부분 행서인데, 해서에서 행서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넷째 획인 匕침의 다양한 모습과 日의 직사각형, 상부가 넓은 모양, 삼각형, 비스듬히 누운 형태는 같은 서체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표 48. '者' 자

행해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49. '情·精·靜' 자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마흔일곱째, 靑이 사용된 '情', '精', '靜' 자다(표 49). 각각 7번, 4번, 1번 사용되었다. 좌우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바로 썼다 비스듬해지는 등 여러 가지 결구를 취했다. 특히 하부의 月은 모습이 더욱 다양하여 개성 넘치는 글씨를 선보인다. 정연함보다는 구애됨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붓 가는대로 쓴 글자들이다.

마흔여덟째, '宗' 자다(표 50). 총 14번 중 비문에 13번, 후기에 1번 나온다. 모두 웅건무밀한 북위풍 해서로 쓰였고, 결구에도 큰 변화가 없다. 후기의 글자는 조금 가는 듯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하다. 다만 첫 획인 점을 바로 세우는가, 비스듬히 눕히는가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표 50. '宗'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표 51. '中'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마흔아홉째, '中' 자다(표 51). 총 16번 중 비문에 11번, 후기에 5번 나온다. 모두 웅건한 북위풍 해서로 쓰였으며, 가운데 세로획의 하부를 懸針과 垂露 두 종류로 표현했다. 가운데 부분에 독특한 글자 2개가 눈에 띄는데 첫 획은 향세로 같지만 둘째 획은 잇기도 하고, 떼기도 하며 내려 굽기가 수직이기도 하고, 첫 획처럼 휘어지기도 하여 같은 느낌과 다른 느낌이 공존한다.

원래, '之' 자다(표 52). 총 100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다. 북위풍 해서와 행서로 쓰인 글자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난정서>에서 17번 사용된 '之'를 다르게 쓴 것을 왕희지의 뛰어남을 말하는데, <낭공대사비>에 쓰인 김생의 '之'는 100개인데도 같은 글자가 없으니, 이것만으로도 김생은 왕희지를 비견할 만하다. <난정서>는 필사본이고, <낭공대사비>는 집자비지만 단목이 모은 김생의 '之' 자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의 70자에서 행기가 있는 것을 포함한 해서와 흘림이 농후한 행서가 대략 반반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이 비가 해서와 행서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 중 하나다. 특히 후기에서 해서의 형태를 행서의 필법으로 쓴 글자들도 있어 '之'의 행서는 해서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표 52. '之'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해서(후)

신한재, ‘至’ 자다(표 53). 총 24번 중 비문에 2번, 후기에 2번 나오는데, 해서보다 행서가 훨씬 많다. 정연한 해서와 노련한 행서로 서체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힘찬 행서는 웅건한 북위풍 해서에 근거한 것이다. 2번 사용된 후기 하단 土의 모습이 다르며, 삼단 여섯째와 끝 글자에서 상부 획이 생략된 것은 다른 글자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특히 끝 글자의 굵기가 비슷한 가는 획이 주는 곡선미는 후기 글자에서 자주 나타난다.

표 55. ‘至’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신들째, '天' 자다(표 54). 총 12번 중 비문에 10번, 후기에 2번 나온다. 웅건한 북위풍 해서와 편하게 흘린 행서가 고루 쓰였다. 해서는 단호한 반면 행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첫 가로획은 양·평·부세로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들째 가로획은 모두 앙세인데, 마지막 획인 파책의 아래를 향한 비스듬한 대각선이 부세의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 네 획에 불과한 단순한 글자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표 54. '天'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해서(후)	행서(후)

표 55. '靑·講·淸' 자

해서	해행	행서	행서(후)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행서(후)	행서(후)

신셋째, 靑이 사용된 '靑', '講', '淸' 자다(표 55). 표 39의 '月'에는 없는 하부 月의 독특함을 살피기 위한 것인데, 각각 4번씩 사용되었다. 세 글자 모두 상하의 모습을 각각 달리하여 다양한 표정의 글자를 만들었다. 특히 셋째, 일곱째 글자에서 하부 月을 'ㄷ+ J' 형태로 쓴 것은 김생만의 독특한 결구법이다.

신넷째, 則이 사용된 '則', '測', '側' 자다(표 56). 각각 8번, 1번, 1번 사용되었다. 대부분 원필의 해서인데, 첫 글자의 마지막 가로획과 마지막 글자의 세로획 기필은 방필이다. 則에서 상부의 目은 유난히 크고 하부의 羊 접은 상대적으로 작아 약간 불안정한 것도 김생 결구의 특징 중 하나다. 전체적으로 원만한 느낌이다.

표 56. '則·測·惻'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해서

표 57. '塔'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신다섯째, '塔' 자다(표 57). 총 7번 중 비문에 6번, 후기에 1번 나오는데, 북위풍 해서와 행서로 쓰였다. 土의 크기와 길이 그리고 획의 굵기에 변화를 주었다. 口의 모양을 조금씩 달리 표현했는데, 가운데 글자의 口는 역삼각형이라 색다르다.

신여섯째, '海' 자다(표 58). 총 13번 중 비문에 10번, 후기에 3번 나오는데, 모두 행서로 쓰였다. 전체적으로 결구가 비슷해 유사한 느낌이지만, 氵는 운필의 속도감이 느린 것과 빠른 것이 구분된다. 여섯째, 일곱째 글자의 氵는 붓놀림이 빨라 유난히 힘차 보인다. 몇 글자는 氵와 每의 연필이 획처럼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글자들과 다른 느낌이다. 후기의 '海'는 획이 가장 가늘고 부드럽지만 힘찬 기운이 있다.

표 58. '海'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후)

표 59. '玄'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신일곱째, '玄' 자다(표 59). 총 11번 중 비문에 10번, 후기에 1번 나오는데, 해서보다 행서가 더 많다. 웅장무밀한 북위풍 해서에서 마지막 가로획이 독특한 모양으로 쓰였는데 행서인 여섯째, 일곱째 글자도 그렇다. 행서에는 해서처럼 첫 획을 점으로 쓴 것, 아래 획과 이어서 직선처럼 연결한 것이 있어 획이 적은 글자

일수록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신여덟째, ‘和’ 자다(표 60). 총 6번 중 비문에 3번, 후기에 3번 나오는데, 대부분 행서로 쓰였다. 흘려 쓴 禾, 반듯하게 쓴 口의 필법이 거의 동일하다. 후기의 가운데 글자만 좌우가 다 흘림으로 쓰여 온전한 행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후기에서 북위풍 해서와 왕희지풍 행서는 김생 글씨의 양면성을 보여 준다.

표 60. ‘和’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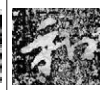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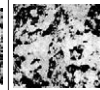
					
행서	행서	행서	해서(후)	행서(후)	행서(후)

표 61. ‘後’ 자

									
해행	해행	해행	행서	행서	행서	행서	해행(후)	행서(후)	행서(후)

신아홉째, ‘後’자다(표 61). 총 11번 중 비문에 7번, 후기에 4번 나오는데 글자의 형태가 다양하다. 좌측 丩변을 해서로, 우측을 행서로 써 한 글자 안에서 해서와 행서를 조합시키기도 하고, 좌우를 모두 거침없이 행서로 쓰기도 했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날카롭게 써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후기의 세 글자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다.

지금까지 <낭공대사비>에서 5번 이상 사용된 글자 60여 종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다양하고 복합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김생의 서예를 한마디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변화무쌍한 결과가 보여 주는 파격, 직선획과 곡선획의 조화, 원필과 방필의 혼용, 향세와 배세의 혼합, 同字異形의 변화, 획간 연결이 보여 주는 유연함, 필획에서 느껴지는 강건함, 해행·행서·초행을 아우르는 변통 등 다양한 미감이 융합되어 진정 김생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광사가 “비의 탑본은 奇偉하고 법이 있다”고 한 것은 뛰어난 필법에 어긋나지 않은 김생 글씨에 대한 참으로 적절한 평이다.

김생의 해서와 행서로 집자한 <낭공대사비>에서 해서의 웅강함은 북비에서 나왔고, 행서의 힘참은 그 해서에서 연원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행서는 유려미와 절제미로 대변되는 왕희지의 행서와 유사한 부분도 있겠으나, 분명히 구별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는 왕희지가 漢碑를 배운 것처럼 한비에 근원을 둔 북비를 원천으로 자신만의 독창적 서풍을 구사했으니, 가히 ‘한국 최초의 비학자’이자 ‘한국 금석학의 시조’라 할 만하다.

IV. 맺음말

김생에 관한 기록과 품평 그리고 전칭작은 많지만 진적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그의 서예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기록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김생의 필적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낭공대사비>에 대한 연구조차 일부 행서 글자들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비의 글자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김생 서예의 참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비에는 해서도 행서만큼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연한 해서,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 해서의 필의가 있는 행서, 유창한 행서가 모두 쓰여 김생은 해서와 행서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능통한 솜씨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김생의 해서는 웅강무밀한 북위풍이 주를 이룬다. 또 동시대 당에서 유행한 풍후한 안진경풍도 보이는데, 안진경도 북비를 배워 힘찬 글씨를 쓸 수 있었다. 이는 김생이 행서 이전에 북비 해서를 익혔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으로, 그의 해서는 거칠면서 투박하고, 웅건하면서 과감하고, 꾸밈없는 자연미가 가득하여 가히 김생의 북위풍이라 할 만하다. 이는 6세기 후반 신라에 수용된 북위풍 해서가 8세기 김생에 의해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아울러 6세기 신라인의 無爲之爲의 미감을 지닌 글자들도 있어 부분적으로 고신라풍도 계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생의 행서는 과감하고 거침없는 운필, 활달한 기운생동, 疏疏密密의 배치, 원필과 방필 그리고 원전과 방절의 조화, 양·평·부세의 혼용, 구애됨이 없는 능통과 변통을 보여 준다. 그의 행서는 북비 해서에 근거했기에 웅건하고 파격적인데, 이는 절제되고 유려한 왕희지 행서와는 분명 결이 다르다. 왕희지는 유년기에 위부인에게 글씨를 배웠으나 결국 그를 떠나 諳山の 漢碑와 魏碑를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글씨를 터득했다. 김생이 배운 것은 왕희지가 배운 바, 즉 왕희지의 외형이 아닌 정신을 배운 것이다. 이것이 김생이 왕희지에 비견되거나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는 왕희지와 북비를 동시에 익혀 왕희지를 뛰어 넘은 안진경의 서예 정신과도 일치한다.

중국 남조 초기에 왕헌지가 왕희지를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활한 서풍 때문이다. 김생 글씨의 활달함과 자유자재함이 왕헌지, 안진경의 글씨와 같다는 것은 이서가 이미 지적했다. 제나라, 양나라에 이르러 二王의 명성이 뒤바뀐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다는 유가 사상 때문이며, 이를 온전히 실천한 당 태종에 의해 왕희지는 마침내 서성이 된다.

이렇게 김생 시절에 왕희지가 이미 서성의 자리에 올랐지만 김생은 왕희지에 머무르지 않고 북비를 배우는 선구자적 안목으로 자신만의 서풍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왕희지를 뛰어넘는 '진정한 서성'이라 할 수 있다. 김생은 당시 신라에서 유행하던 왕희지풍을 배웠겠지만 그의 행서에는 왕희지를 버린 후 얻을 수 있는, 왕희지와 구별되는 독특한 미감이 있다. 아마도 김생은 왕희지가 배운 것이 漢碑였다는 사실을 간파했을 것이다.

중국 금석학자 강유위는 『廣藝舟雙楫』에서 모든 북비의 근원은 한비라고 주장하고 번각을 거듭한 첩보다 원의가 살아 있는 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김생은 8세기에 이미 이를 인지하고 실행한 것이다.

글씨의 원류를 찾는 비학 공부를 통해 스스로 창의적 미감을 습득했다는 점에서 김생은 ‘한국 금석학의 祖宗’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김생이 복비를 배워 신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음을 증명했고, 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낭공대사비〉 글자의 서체와 결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김생 글씨의 특징을 탐구한 이 글로 인해 이 비의 서예사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고, 김생 서예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9. 10. 28.

심사개시일: 2019. 11. 1.

심사완료일: 2019. 11. 20.

1. 원전

『三國史記』(김부식)

『東國輿地勝覽』

『東國李相國集』(이규보)

『眉叟記言』(허목)

『書訣』(이광사)

『書訣』(이삼만)

『慵齋叢話』(성현)

『耳溪集』(홍양호)

『筆訣』(이서)

『筆苑雜記』(서거정)

『破閑集』(이인로)

2. 단행본

강유위 지음, 정세근·정현숙 옮김, 2014, 『광예주쌍집』 상·하권, 다운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김상숙·이삼만·이서·이광사 원저, 김남형 역주, 2002,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의 서예비평』, 한국서예협회.

원광대학교 서예과 동문 편저, 2018, 『먹의 배와 붓의 향기』, 다운샘.

이지관,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정현숙, 2016, 『신라의 서예』, 다운샘.

정현숙, 2018,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진홍섭, 2011, 『김생』, 대원사.

한국사연구회 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下, 혜안.

한신대학교 박물관, 1999, 『英·正祖代 集字碑 名品展』.

허흥식, 1984,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아세아문화사.

東京國立博物館, 2013, 『書聖 王羲之』.

東京國立博物館, 2019, 『顏真卿-王羲之を超えた名筆』.

東京國立博物館·台東區立書道博物館, 2019, 『王羲之書法の殘影-唐時代への道程』.

3. 논문

- 김수복, 2015, 「김생 서예의 형태미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맹흠, 2010, 「김생의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 서풍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형, 1998, 「김생 필체의 변천과정-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11, 한국고대학회.
- 서동형, 2002, 「金生의 書法-백월서운비와 전유암산가서의 서체미 비교」, 『성신한문학』 6, 한국한문고전학회.
- 서동형, 2003, 「金生의 筆法論」, 『한문고전연구』 7, 한국한문고전학회.
- 성인근, 2007, 「<白月棲雲塔碑>의 전래과정과 전승유형」, 『서예학연구』 10, 한국서예학회.
- 이미경, 2008, 「김생 서예 연구」, 『서예학연구』 12, 한국서예학회.
- 이완우, 1998a, 「金生과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 『옛 탁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역사』, 韓國의 名碑古拓 論文集, 예술의전당.
- 이완우, 1998b, 「統一新羅 金生의 筆蹟」, 『선사와 고대』 11, 한국고대학회.
- 이호영, 1998, 「金生의 墨痕과 足跡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11, 한국고대학회.
- 정세근, 2003, 「김생의 서예와 그 집자비의 문제」, 『중원문화연구』 7,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정현숙, 2013, 「통일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서풍의 특징」, 『서예학연구』 22, 한국서예학회.
- 정현숙, 2018a, 「김생과 최치원, <월정교>로 부활하다」, 『먹의 배와 붓의 향기』, 다운샘.
- 정현숙, 2018b, 「통일신라 범종 명문의 서풍 변화」, 『서예학연구』 33, 한국서예학회.
- 정현숙, 2018c,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 허정욱, 2010, 「조선시대 김생 서예의 계승」, 『역사문화논총』 6, 역사문화연구소.

〈Abstract〉

The Calligraphy of Kim Saeng in the Unified Silla Period

—Based on *Nanggong-daesa Stele*—

Jung, Hyun-sook

The reliable works by Kim Saeng(金生), a noted calligraphy of the Silla, are *Nanggong-daesa Stele*(即空大師碑), a stele with collected characters, and *Tian Youyan-sangaseo*(田遊巖山家序), a block book. The former keeps the original brush touch, and the latter lost it. Therefore, I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 of Kim Saeng's calligraphy through the stele.

The stele composed by Choi In-yeon(崔仁浣) and Monk Sunbaek(釋純白) was written in the regular and running scripts. The regular script with the taste of running script and the running script with the sense of regular script also used so that one can see his excellence coming and going between the two scripts. His regular script is mainly the Northern Wei style and partly Yan Zhenqing's style of the time in China as well as the Old Silla style in the 6th century. His powerful running script based on the regular script of the Northern Wei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lowing running script by Wang Xizhi.

The stele tells us the fact that the regular script of the Northern Wei style used from the end of the 6th century in Silla kept on being used through the 7th century to the 8th century. The running script in Wang Xizhi's style became prevalent from the 8th century in Silla. Kim created his own running script by studying Wang's style, but it basically came from the regular script of the Northern Wei. Accordingly, the difference between Wang and Kim can be mentioned, but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cannot be stated.

▶ Key words: Kim Saeng, Choi In-yeon, Monk Sunbaek, Nanggong-daesa Stele, Tian Youyan-sangaseo